

## 나주시, CU편의점과 ‘마음 건강 자가검진 이벤트’

QR코드 활용 정신건강 온라인 자가검진



CU 마음이음가게에 설치된 마음 건강 온라인 이벤트 안내판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지난 6월, 전남 최초로 편의점을 활용한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나서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살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관내 CU편의점 29개 '마음 이음 가게'는 나주 시민 누구나 정신건강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청장년층 시민들이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를 일상생활 공간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안내와 위기 상담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자살 예방의 날(9.10.)'과 '정신건강의 날

(10.10.) 기념 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9월부터 오는 10월 16일(금)까지 시민 참여형 생명 존중 캠페인을 운영해 나주 시민 누구나 QR코드를 활용한 정신건강 온라인 자가검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CU편의점을 방문하여 배치된 안내판의 QR코드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편의점은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시 문의가 필요하다.

한편 나주시보건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우울·불안 심리지원 프로그램, 자살예방 사업, 아동·청소년 및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위기개입 지원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선택 기자

담양, '군정 소통의 날' 열고 새 출발 다짐

화순군, 도심 폐선로 '멈춘 철길, 다시 걷는 숲길'로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1일 군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함께 만드는 담양, 군정 소통의 날'을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을 위한 군정 방향을 공유했다.

박종원 군수는 이날 군민과의 대화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농산물 직거래, 문화·관광행사 등 각종 현안 추진에 힘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민선 9기 여섯 가지 군정방침 가운데 경제·정주 분야인 '삶이 윤택한 활력경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년도 예산 편성, 농어촌 기본소득과 통합발전기금 등 새로운 재원의 활용,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은 국가철도공단과 '2026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선정돼 옛 북암선 폐철도 부지를 군민을 위한 생태 테마 숲길로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화순역에서 광덕교차로까지 3km 구간으로, 군은 2029년까지 걷고 쉬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선형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녹지와 휴게공간을 확충해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주변 문화·체육시설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녹색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선로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면서 군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휴식·여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호경 기자

## 영광군, 복지현장 종사자 안전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복지기동대원 대상 현장 안전교육



복지현장 종사자 안전대응 역량 강화 교육 사진

/영광군청 제공

등 위험상황별 대응방법 ▲가정방문 전 위험요인 확인과 신고요령 ▲2인 이상 동행 방문 등 안전수칙 ▲고독사 위험가구 방문 시 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담당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과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익힐 수 있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복지현장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담당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교육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종사자들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고, 복지대상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진기 기자

## 장성, 대통령기 조정대회가 '금빛 레이스'

금 2, 은 2, 동 3 획득... 조정 꿈나무들 선전 돋보여

장성군에서 열린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중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에 전국 38개 팀 3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대회 개최지인 장성군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적을 거둬 주목받았다.

먼저, 남자 18세이하부 무타페어에서 장성하이텍고 임서우, 임서준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경량급 싱글스컬에서는 임서우 선수가 1위를, 싱글스컬에선 임서준 선수가 3위에 올랐다. 여자18세이하부 싱글스컬에서는 문향고 윤담인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남자 15세이하부 싱글스컬에선 장성중 강두영 선수가 2위에 올랐으며, 여대 및 일반부 경량급 더블스컬에서는 장성군청 소속 김미수, 유지현 선수가 3위를 기록했다.

축하 인사를 전한 김한중 장성군수는 "젊은 선수들의 선전이 '조정



경량급 더블스컬 3위에 오른 장성군청 소속 김미수(우), 유지현 선수

/장성군 제공

의 메카' 장성군의 내일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면서 "꿈을 향한 선수들의 '금빛 레이스'가 거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시도별 순위는 충청북도가 152점으로 종합우승을 거머쥐었으며 광주광역시 145점으로 준우승, 전라남도는 131점으로 종합 3

위에 올랐다. 장성군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적의 경기장 환경을 갖추기 위해 힘썼으며 대회 홍보, 현장 지원 등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호평받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장성호 조정경기장의 우수한 시설과 조정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김재섭 기자

#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

무안군